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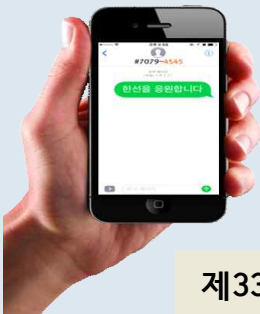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대한민국의 새주류 새중심 세우기

[발제자] 김진현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일 시] 2020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 요 약

■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OPS: Omni-Perfect-Storm) 상태이다. 국내외적으로 안보, 외교, 경제, 산업, 노사, 가족, 언론,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후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 총체적 위기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 길은 자강과 자각에 있다. 첫째는 안보의 자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러시아, 일본 등 핵을 보유한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더욱이 세계의 안보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어 핵 분야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에서의 안보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는 대응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는 정치의 자성이다. 외교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정치,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인구·가치·정체성 등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역사의 교훈에도 충실해야 한다. 과거 외침과 주변 세력의 격동 앞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 이제는 적전에서 싸우기보다 연대하고 통합하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 정치의 정상화 없이는 현재 닥쳐온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주류, 새중심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자기 실체의 확인이며 반성이다. 참화·용서·동참·일치의 진정성 있는 자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새중심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화해를 통해 익세제민(益世濟民)의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은 진실·정직·양심·겸손·희생이다. 또한 제1주의, 패거리충성,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보편윤리에 충실한 접근으로 대한민국에 닥쳐온 도전과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 OPS(Omni-Perfect Storms)

- ◆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전(全)방위 완전태풍 OPS(Omni-Perfect-Storm)’상태이다.
- ◆ 국내적으로는 안보, 외교, 경제, 산업, 노사, 가족, 언론,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후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 ◆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가치가 국제질서의 좌초와 반동으로 역습을 맞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쓰레기, 생태환경의 문제와 ‘코로나19’ 등의 전 세계적 바이러스와 질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 ◆ 새길 찾기 출발점: 자강 자각

- ◆ OPS(총체적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길의 출발점은 자강과 자각에 있다. 첫째는 안보의 자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의 외로운 섬에 있다. 한반도는 북한, 러시아, 일본 등 핵을 보유한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은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할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더욱이 세계의 안보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어 핵 분야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에서의 안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는 대응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 ◆ 둘째는 정치의 자성이다. 즉, 외교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정치,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인구·가치·정체성 등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성의 정치가 필요하다.
- ◆ 역사의 교훈에도 충실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이 나라는 외침 앞에, 주변 세력의 격동 앞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위험을 겪었다.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 이제는 적전에서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연대하고 통합하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 ◆ 대한민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

- ◆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대한민국 새 출발의 정리행사가 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정치의 정상화 없이는 현재 닥쳐온 총체적 위기(OPS)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주류, 새중심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자기 실체의 확인이다. 자기 실체의 확인은 반성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많은 대한민국 정치·종교·예술·기업 등의 지도자들이 하겠다면 반성은 말에 그쳤다. 이제는 말을 넘어 참회·용서·동참·일치의 진정성 있는 자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 ◆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주류, 새중심을 세울 수 있다. 새중심은 정도(正道)의 모범이 되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화해를 통해 익세제민(益世濟民)의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새주류를 통해 불가촉 암흑지대의 반(反) 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고 정리할 수 있다.
- ◆ 새주류, 새중심 행동의 틀은 진실·정직·양심·겸손·희생이다. 승리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희생과 봉사로 성취해야 한다. 제1주의, 패거리충성,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보편윤리에 충실한 접근으로 대한민국에 닥쳐온 도전과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